“청춘들, 모두 잘 살았으면 해서 ‘올 리브(All-Live)’죠”

광주 출신 김소영 감독 ‘올리브’ 전주국제영화제 쇼케이스작 선정
여성주의·비정규직 등 다뤄…오롯이 자립하는 청춘 그려내 호평

영화 ‘올리브’ 스틸컷.

김소영 감독이 본격적으로 영화감독에 입문하기 전 촬영했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당시 캐논60d 카메라를 들고 광주·전남 방방곡곡을 누비며 공모전에 도전했다고 한다.

“영화 ‘올리브’는 육아휴직으로 ‘대체되는 자’와 ‘대체하는 자’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죠. 여성주의적 작품이라는 데서 궤를 함께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동시대적 문제로 조금 방향성을 틀었어요. 서사는 제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한번은 전기설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계약직이라 회사 안에 저의 고정석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리가 생겼지만 구석진 모퉁이였죠. 그땐 서러웠지만, 그저 웃고 또 웃었어요. 그 쓴 웃음이 단단한 뿌리를 내려 굳건한 ‘올리브’ 나무가 됐네요.”

지난 2일 광주 첨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소영(여·32) 감독. 청록빛 셔츠도 감람색 핸드폰도 온통 그녀의 영화 제목을 닮은 ‘올리브’ 빛깔이다. 지난해 광주영화학교(지혜학교)에서 김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가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단편영화 ‘올리브’는 최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역독립영화 쇼케이스작으로 선정돼 특별상영 섹션에 올랐다. 멀티플렉스 영화와 자극적인 ‘매운맛’ 영화가 범람하는 시대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보아줄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울림을 남긴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전주국제영화제 타이틀 옆에 나의 시놉시스가 내걸리니 감회가 깊다”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많은 관객에게 ‘홀로서기’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이 의미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영화 제목이 열매 ‘올리브(olive)’가 아니라 모두 살아간다는 뜻의 ‘올 리브(All-Live)’인 점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김 감독은 비정규직 자리를 대체하는 선주와 은하가 모두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목에 투영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여성영화제를 통해 영화계에 입문한 것 외에도, 그가 여성주의 영화에 천착해 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단단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처음 봤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광주에서 취업하던 때의 비화도 들을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서울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당시 광주 빵집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에 ‘상고 출신’이라고 썼다는 것. 그로부터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2018)에서 모성의 지극함을, ‘할머니와 감나무’(2020)에서는 중년 여성의 서사를 다뤄 왔다. 김 감독이 살아온 이력이 곧 영화가 된 셈이다.

지난해 선보였던 단편 ‘치얼스’에서는 남성(성)에도 주목했다. 남성을 단순히 도구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분적 성관념 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했다. ‘치얼스’에서 아빠 ‘석윤’이 딸 ‘인주’의 옷을 개어주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자상한 면모로 부각된 것은 그런 연유다.

“여성주의 영화이지만 늘 아빠(남성)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싶었어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중년 남성들의 뒷모습 같은 거요. 아버지가 얼마 전 퇴직을 하셨는데,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시던 분이 퇴직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컴퓨터 앞에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김 감독은 아버지가 “소영아 이제 나 뭐할까, 커피라도 배워볼까”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여성주의 영화감독’의 길을 밟고 있지만 그의 필모그래피는 양성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김 감독은 다음에 쓰고 싶은 이야기로 ‘한 여성이 오롯이 자립하는 이야기(단편)’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장편)’를 구상 중이다. 영화적 상상력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조선대에서 국어국문, 영어, 영상디자인을 전공한 뒤, 미대생 친구들과 어울리며 우연한 기회에 ‘사진’에 입문했다. 브라이언 피터슨의 ‘사진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구입해 독학했고 부모님을 설득해 캐논60d카메라 하나에 18-200렌즈를 장착, 다양한 피사체들을 찍었다. 영화적 몽상과 더불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눈이 개안된 계기였다.

지금의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물었다. 김 감독은 2012년 새벽에 아버지를 깨워 목포항으로 달려갔다. 오징어잡이 배를 찍기 위해서였다. “해양사진 공모전에 출품해야 한다”는 부탁을 들어준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영화 ‘올리브’ 속 선주와 은하는 현실에서 모두 살아남기(All-live)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 밀어내면 누군가 밀려나는, 이 세계에서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싶었다. 김 감독은 “영화처럼 명확한 답을 낼 수는 없지만, 더 나은 현실을 위해 관객들이 함께 고민해 줄 것이다”며 “‘그럼에도’, ‘오롯이’ 동시대 청춘들이 저마다의 올리브 나무에 기대어가며, 올곧게 존재하고 살아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ON-LINE 공연예술창작산실 작품 만나세요

창작뮤지컬 ‘여기, 피화당’ 등
예술위, 11편 5~6월 무료 중계
매주 화·목 오후 8시 순차 공개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의 ‘a Dark room’ 〈예술위 공연예술창작산실 누리집〉

지난해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펼쳐졌던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지난해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통해 발굴했던 지난해 작품들이, 오는 5~6월 온라인 중계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온라인 중계는 연극 ‘화전’, 창작뮤지컬 ‘여기, 피화당’, 무용 ‘a Dark room’을 비롯해 음악 작품 ‘In&Around C’, 창작오페라 ‘이상의 날개’, 전통예술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2’ 등 총 10편의 작품을 상연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당일 자정까지 무료 관람.(20일 ‘여기, 피화당’은 후원자 한정 관람)

연극 ‘화전’은 고려 말 유신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집단 간의 갈등과 공존을 그렸다. 정선아리랑 가락을 활용한 음악과 연출이 가미돼 있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영웅소설 ‘박씨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뮤지컬 ‘여기, 피화당’도 이목을 끄는 작품이다.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바탕으로 주체적 여성 캐릭터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의 ‘a Dark room’은 형형색색의 바디페인팅을 한 것처럼 보이는 무용수들이 펼치는 무용극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팔을 휘젓는 이들은 각자도생의 사회가 만들어 낸 개인주의, 인간소외, 해체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동해안 오구굿을 소재로 기악을 접목한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2’, 재즈와 고음악, 한국 전통음악 및 전자음악 연주자들의 컬래버 ‘In&Around C’, 시인 이상의 일대기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창작 오페라 ‘이상의 날개’도 온라인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예술위 관계자는 “작품성으로 지난해 주목받았던 창작산실 27개의 작품 중 11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각 작품 주제에 담긴 인간성, 죽음, 무의미, 소멸 등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네이버TV 공연 라이브에서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5·18문학상 본상’에 김해자 ‘니들의 시간’

도형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 3명 신인상

지난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무화과는 없다’, ‘축제’ 등의 시집을 펴낸 김해자 시인. 민중구술집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을 펴내며 고통 받는 자들과 시대에 대한 인식을 자신만의 글과 시로 표현해왔다.

만해문학상, 백석문학상, 전태일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민중시’의 물줄기를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자 시인의 ‘니들의 시간’(창비·사진)이 ‘2024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상금 2000만원.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최근 ‘2024 5·18문학상’ 심사회를 갖고 본상 수상작을 비롯해 신인상 수상작을 선정됐다. 이번 5·18문학상은 재단과 계간 ‘문학들’, 한국작가회의가 공동 주관했다.

신인상 수상작에는 도형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시), 박록삼 ‘조금만 기다려요’(소설), 이정란 ‘그림 동전’(아동문학)이 각각 선정됐다. 신인상 소설은 상금 500만원, 시와 아동문학은 각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본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하상일)는 “수상작이 리얼리즘 시의 취약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바탕을 만드는 강력한 전환점”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본상 및 신인상 심사는 공통적으로 5·18정신의 미래 전승을 위해 작품의 주제와 서사가 가진 확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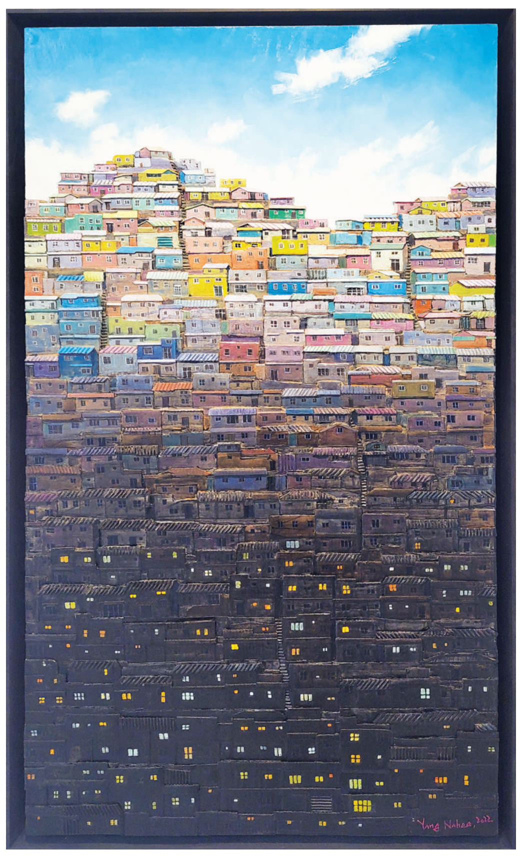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본상 수상자와 신인상 수상작은 계간 ‘문학들’ 수록의 기회가 주어진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5·18문학상은 문학을 매개로 5·18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재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오월문학 성과를 집대성하기 위해 오월문학총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짧지만 강렬한 봄바람

‘서양화 22 작가 초대전’ 8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



양나희 작 ‘해동네’

골판지가 근사한 작품으로 탄생했다. 생명력은 애정의 눈길로 바라볼 때 획득되나 보다. 골판지를 오려 붙이고 그 안을 색으로 채우는 동안 작가의 머릿속에는 특정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이다. 해가 비치기 시작한 언덕에 자리한 동네의 모습은 다정하면서도 따뜻하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심의 화려한 공간이 아닌 아침 무렵의 산동네는 보는 이에게 지나온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풍경을 환기한다.

지난 4월 개막돼 오는 8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관장 장하경)에서 열리는 ‘서양화 22 작가 초대전’. 전시장에 진열된 젊은 서양화가들 작품은 봄기운으로 가득하다. ‘Spring Breeze’라는 주제처럼 저마다 개성과 심미안이 투영된 그림들은 보는 이에게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봄의 산들바람은 이미 불어와, 우리들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열망을 일깨운다.

전시장에서는 한동훈, 정정하, 하승완, 이정은, 이인성, 이다애, 오성현, 양나희, 양호열, 송유미, 박정일, 박다혜, 박영현, 박경희, 나수빈, 김은택, 김예지, 김영일, 김수진, 고마음, 강미미, 강동호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 봄 개관 후 두 번째인 이번 전시는 서양화 작가들 그림으로 구성됐다. 화사하면서도 독창적인 그림은 짧지만 강렬한 봄을 만끽하게 한다.

전 광주대 교수인 장하경 관장은 “이번 전시는 저마다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서양화 작가들 위주의 작품을 선보인다”며 “올해 10여년 만에 새롭게 재개관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발길을 붙든다. 이정은 작가의 ‘중봉’은 광주시민들에게 익숙한 무등산을 초점화한다. 무등산을 사랑하고, 어머니 품으로 상정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련하면서도 아프다. 고운 빛깔로 물들인 중봉의 산마루 저편에 기다랗게 솟은 물체는 보는 이에게 한번쯤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 첨탑 같기도 미사일 형상 같기도 한 물체들은 중봉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한다.

아울러 정정하의 ‘빛에 대한 연구’, 송유미의 ‘무한에 대한 상상’, 박경희의 ‘Blaze Love’, 박영현의 ‘나무’, 양호열의 ‘중독’ 등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봄의 계절에 맞춤한 아우라를 선사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의 한 책’ 투표 시작

전남대 도서관 23일까지

‘최재천의 곤충사회’, ‘메리골드의 마음 세탁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슬픔의 방문’.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일환으로 펼쳐지는 ‘올해의 한 책’ 투표가 시작됐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최문홍)은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기획으로 마련한 ‘올해의 한 책’ 투표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투표는 광주·전남 시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 홈페이지, 전남대 도서관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3개 도서관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도서는 오는 6월 예정된 ‘한 책 선포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후보 도서는 앞서 언급한 5권의 책들로 에세이, 인문, 교양, 소설 등 다양한 분야가 선정됐다. 이들 후보 도서는 지난달 교수, 언론인, 사서 등 14명으로 구성된 한 책 선정위원회에서 뽑았다.

한책 선정 이후에는 관련 책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최문홍 도서관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는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이자 시도민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고와 의견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도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책을 읽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